



선묵일여 화두 삼아 한획 두획

투병하며 써내려간 사경 '영적전' 여는 기현 스님

<影迹展>

“서툰지언정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 하였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만 진통과 인고로 써 내려간 애환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포병반생(抱病半生). 기현 스님(사진)은 병을 안고 반생을 살았다. 질긴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수행자는 사경을 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 스님은 “밥을 많이 먹어서 위장이 터졌었다”며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할 정도로 회복돼 있었다. 길고 질긴 병을 이겨낸 승자의 여유였다.

“우리네 삶은 남 흉내내는 것 뿐입니다. 흉내나 내며 살다가 떨어진 곳이 다행이도 집집이었죠. 이제는 꼭두각시놀음을 그만하고 소요(逍遙)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영적전(影迹展)” 전시를 앞두고 있는 기현 스님이 관람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스님은 꾸밈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기를, 그리고 관람객들과 사경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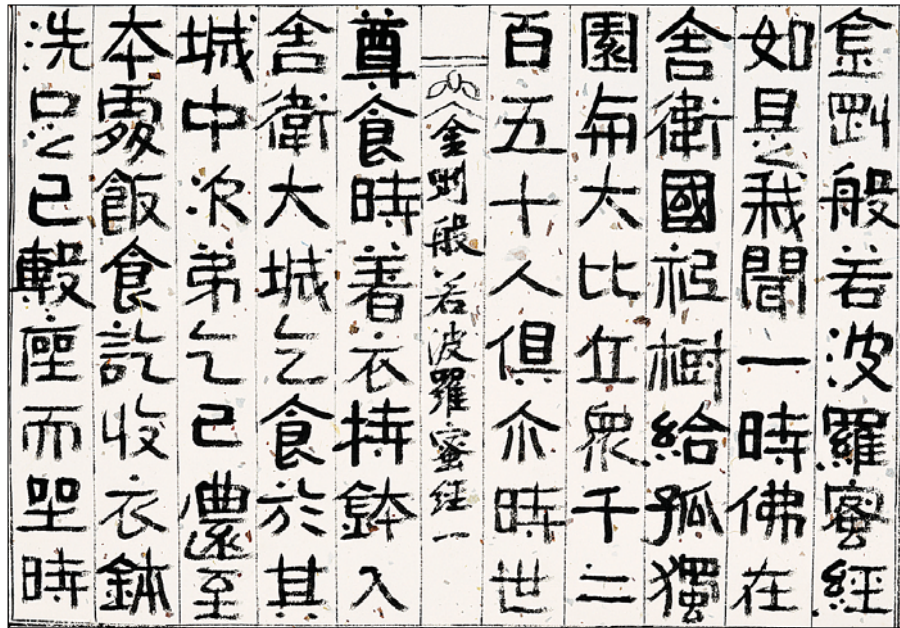
26세 때인 1968년 법어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1976년 쟁계사에서 공부하던 중 병을 얻었다. 병과 싸우며 소일거리로 시작한 서예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1978년 동방연서회에서 여초 김응현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부터다.

“병은 저를 지혜로 이끌어 주었습



기현 스님(위)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 (오른쪽) 기현 스님이 사경한 작품 속에는 자연스러운 힘이 배어 있다.



니다. 마치 쇠를 용광로에 녹여 단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장을 회복하는 동안 어떤 수행도 할 수 없었지요. 그때 붓을 들고 시작한 사경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길고 질긴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사경을 하면서 선묵일여를 화두삼아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경은 900여 점의 작품으로 탄생했다. 전시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불경을 써가면서 그의 신심은 더 깊어졌다. 그 결과물은 1.2km에 달하는 <화엄경> 사경 병풍, 5200여 자의 <

금강경> 병풍으로 태어났다.

“또박 또박 해서체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경이 아니라 다양한 서체를 이용해 붓을 휘둘렀죠. 여초 선생은 제 글씨를 보고 “정도(精道)로 된 것은 없지만 야생은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꾸미지 않는 것, 그것이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소요를 추구하는 스님의 사경 속에는 독창적인 글씨체가 담겨있다. 다양한 경서(經書)를 15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경 해온 작품 세계에는 불교와 신심, 예술이 함께 담겼다.

“병이 없었다면 사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전을 보고, 선방에 앉아 수행정진 했겠지요. 참선은 불교에서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참선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요. 사경의 경지에서 삼매는 깨달음과 똑같습니다.”

서예와 불법의 매력에 빠져 방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스님은 지금도 양평 보타암에서 사경삼매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현 스님의 사경 전시회 ‘사문기현영적전(沙門奇玄影迹展)’은 9월 29일~10월 5일 서울 인사동 한국박물관에서 개최된다.

<화엄경>과 <법화경> 등 300점이 공개된다. 2004년부터 3년간 써내려간 <화엄경> 사경은 감지(紺紙)에 금니를 사용해 금문, 백서, 예서, 해서, 행서 등 오체로 쓰여졌다. 글자 수만 해도 약 70만 자에 달하는 작품은 스님의 오랜 산고의 흔적이다.

<법화경> 사경은 감지에 경면주사(鏡面朱砂)로 쓴 것으로 사경 기간만 2002~2008년으로 30×135cm 병풍이 120폭이나 된다. <금강경> 사경도 전서나 금문 등 다양한 서체로 5200여 자에 이른다.

작품들 중에는 다양한 갑골문이나 주·은 시대 병기나 제기 등에 썼던 백서(帛書)도 눈에 띈다. 그밖에 가로 11m의 <화엄경> 약찬게, <반야심경>을 수막새의 외당문문화한 것 등 고장된 틀에서 벗어난 작품들이 가득하다. (02)732-7096 이상언 기자

“조계종이 사회통합에 나서야”

법전 스님, 자승 스님에 주문... 화쟁위 출범도 격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사진)이 화쟁위원회 출범을 격려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법전 스님은 9월 7일 추석 하례차 해인사 퇴설당을 찾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화쟁위원회 발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현안들을 잘 다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 앞으로 종단이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전 스님은 “우리 사회가 매우 어렵다. 남북갈등과 정치갈등

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화쟁위원회 출범의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이 4대강 문제 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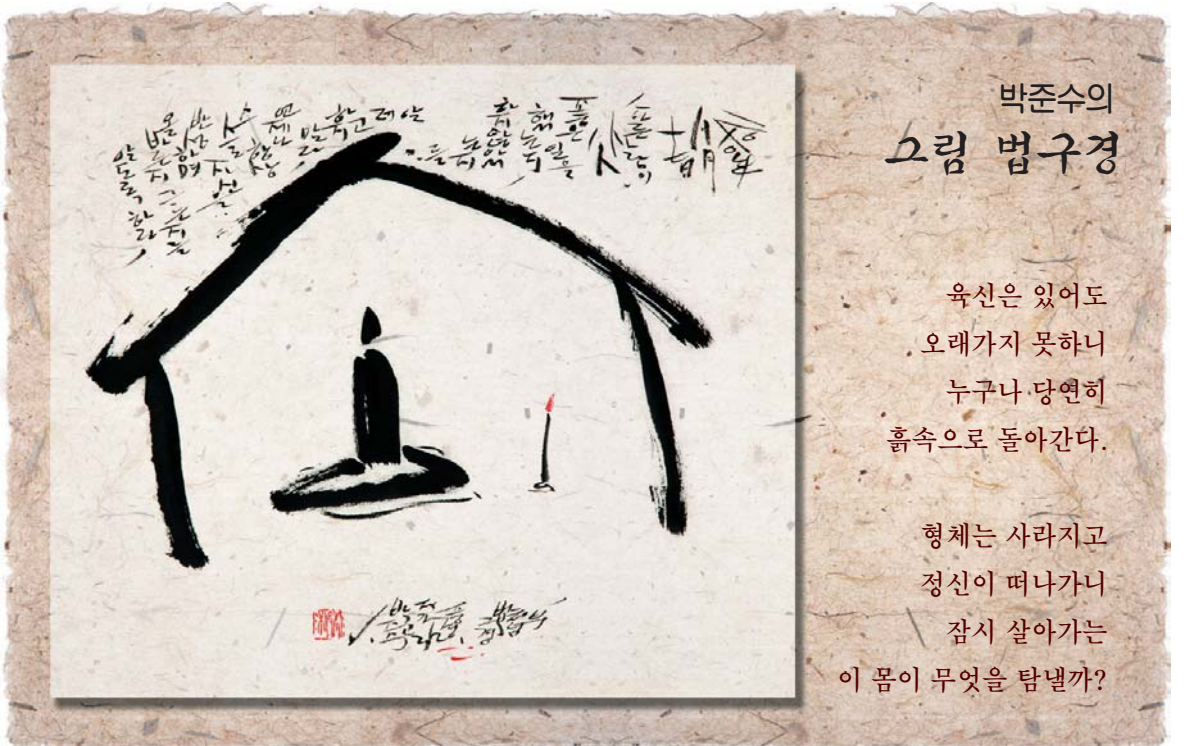
총무원장 스님은 “16일 화쟁위가 여야와 정부,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4대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종정예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종

단의 소통과 화합에도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조계종 원로 회의의장 종산 스님은 추석 하례차 청주 보살사를 찾은 총무원장 스님에게 “국민통합을 통한 국민인권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박준수의 그림 법구경

육신은 있어도 오래가지 못하니 누구나 당연히 흠속으로 돌아간다.

형체는 사라지고 정신이 떠나가니 잠시 살아가는 이 몸이 무엇을 탐낼까?

추석 제수용품·선물 특판

연우와함께·인드라마·사찰 생협 등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민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가까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추석 선물이다. 보통 선물은 정성이라고 말한다. 먼저 받는 사람이 부담없어야 하며, 주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돼야 한다.

연우와함께(대표이사 이상근)는 불자들이 생산한 친환경·유기농산물, 공정무역 제품,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 각 사찰 특산물 등을 주로 판다.

인드라마 생협은 단순한 생산·소비 연결 뿐만 아니라 귀농민들의 생산물을 도시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해 귀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인드라마 생협은 ‘제철 꾸러미’ 프로그램을 통해 각 귀농조직들의 생산물과 생활재를 매주 각 가정으로 배송하고 이 과정을 공개해 도시 유기농식품 창업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각 명절을 맞아서는 금산 홍삼과 한과, 무농약 쌀, 지리산 산머루 와인 등을 상품화해 판매한다.

이밖에 서울 조계사는 경내 입구 불교용품점에서 강원도 정선과 경기도 영천의 햇콩만을 사용해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메주와 켈리스트’의 된장과 간장, 쌈장 등 20여 가지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는 입구 ‘솔향기’에서 오리쌀 식혜, 기름에 튀기지 않은 즉석국수 등 700여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능인선원·수원 수원사·광명 금강정사·부천 석왕사 등도 생협을 통해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14 15 간화선 진제 스님
화두일념만 지속이 되면 그 깨닫는 과정은 참나인 것이니, 세상사에 정신없이 세월만 낭비하지 말고 일거수일투족 ‘참나’를 찾는 화두와 씨름해서...
- 7 학술 조선불교통사 원역 출간
- 9 현장 병불원 후 의료봉사
- 11 선원총림 전통 선당의 내부
- 16 강의실 재기불자 2인 조영

아! 나로부터 벗어나는 행복 자유 평화
추석연휴 삼매체험 4박5일 **단식·참선**
인생대 전환
몸에 배어버린 굳어버린 생활습관 체질전환, 단기출가로 해결해보십시오
아기손 붙잡아 일으키듯, 다가가는 간화선체험
기적의 국민단식·다이어트 1일 3kg 요요현상제로
물만 마시고도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을 피치·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역성 노화방지 해독 아토피 피부 어드름 생리안정 금연 금주
9월 19일~23일, 10월 8일~12일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청소년 대학생 일반
인턴사원 모집
- 참선전문도량에서 수행 전법업무에 기여하고자하는 분 -
- 분 야 1. 기획, 관리직 : 0명 2. 아르바이트(대학생) : 0명
※ 산사(참선도량)에 머물고자하며, 참선도량의 업무에 기여하고자 뜻이 있는 분(기획업무 경험자 우대, 전법에 뜻이 있거나 수행업무를 익혀 기여하고자 하는 분), 연락바랍니다
활인선원 원명선원 ☎1644-5266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명석 카펫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연휴
좋은 상품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삼베 명석 카펫
- ◇ 크기 : 가로 280 × 세로 180 × 두께 약 1cm
-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용법) : 요가, 매트,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능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